



바가지 · 표주박 · 바가지 굽다

바 가지는 한해살이 식물의 하나로 옛날부터 바가지나 뒤웅박 같은것을 만드는 데 이용된 '박'에 작다는 뜻을 가진 접미사 '아지'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박을 반으로 쪼개면 바가지가 된다. 용도에 따라 쌀을 퍼내는 쌀바가지, 물을 퍼내는 물바가지 등이 있다.

조롱박이라고 하여 작은 호리병 모양의 박도 있다.

이같이 작은 박은 반쪽으로 잘라 휴대용 물잔으로 쓰거나, 호롱박의 속을 파내고 통째로 말려서 물병 대용으로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한다. 『동국세시기』에 어린아이들이 겨울부터 빨강 파랑 노랑의 호리병박을 차고 다니다가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남몰래 길가에 버리면 액(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기록도 나온다.

표주박은 조롱박이나 둥근박을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민속에서 표주박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휴대용 감옥이요, 따라서 불행을 예방하는 액막이기도 했다. 동짓날에 표주박 모양으로 노리개 세 개를 만들어 노랑 파랑 빨강 삼색 칠을 하여 아이들 허리에 채웠다가 이듬해 정월 대보름날 이를 길가에 버리면 연중 소액(消厄)이 된다고 여겼음도 바로 표주박의 귀신 쫓는 힘의 민속적 활용이었던 것이다.

‘바가지 굵다’는 잔소리가 심함을 이르는 말로서,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와 불평을 할 때 쓴다.

이 말은 옛날 전염병이 돌면 그 귀신을 쫓기 위하여 상 위에 바가지를 놓고 굵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시끄러웠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무척 듣기 싫은 소리였으므로, 점차 ‘심한 잔소리’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도로아미타불 · 만사휴의(萬事休矣)

어떤 일이 들어졌을 때 흔히 도로아미타불 또는 만사휴의라 하는데, 두 말에는 차이가 있다. 도로아미타불이란 순간의 실수로 애쓴 일이 소용없이 되어 처음과 같음을 일컫는 말이고, 만사휴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보았지만 달리 해결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여 모든 일이 헛수고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이다. 두 말의 사연을 알아보면 그 뜻은 더욱 명확해진다.

옛날 어떤 고을로 동냥을 갔던 젊은 중이 아리따운 처녀를 보고 그만 상사병에 걸렸다. 중은 번민 끝에 처녀에게 청혼을 했다.

처녀는 10년 동안 한방에서 동거하되 손목도 잡지 말고 바라만 보고 친구처럼 지내면 10년 후에는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동거가 시작되어 어언 내일이면 10년이 되는 날 밤, 중은 사랑스런 마음에 그만 하루를 못 참고 처녀의 손을 덥석 쥐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처녀는 파랑새가 되어 호르륵 날아가 버렸다. 이리하여 10년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10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속담이 생겨

났다.

줄여서 '도로아미타불' 이라고 한다. 만사휴의는 『송사(宋史)』의 「高氏世家」에서 비롯된 말이다.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가 일어나기까지 왕조가 갈리기를 다섯번, 그 무렵은 지방에 할거했던 약소국이 열개나 되었다.

남평(南平)이라는 나라도 그 중의 하나였는데, 개조(開祖) 고계창(高季昌)은 강대국에 붙는 임기응변식 처신으로 왕권을 10여년 유지하였다.

그의 아들 종회(從誨) 또한 영리한 반면 모략이 심해서 여러 나라에 발을 대고 권력을 유지했고, 아들 보융(保融)에게 무사히 대를 물렸다. 보융은 그의 아우 보훈(保勛)에게 왕위를 물렸는데, 바로 이 보훈의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 종회의 편애를 받고 자란 영향으로,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살았다. 당시 송나라가 강성해지고 있던 시기였기에 국력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함에도 만사 걱정 없는 태도로 일관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남평 사람들은 만사휴의(萬事休矣: 모든 것이 끝났다)요, 이제 그에게 기대를 걸어 볼수가 없으니 남평은 곧 망할 것이라고 수군수군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백성들의 피땀을 강요하며 굉장한 누각을 세우더니,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앉아 별거승이 장정들의 희롱을 즐겼다. 색을 바친 그는 얼마 못 가 죽고, 그의 사후 모든 실권을 송나라에 갖다 바침으로써 남평은 멸망하고 말았다.

출전 : 『만사유래사전』 (박영수 지음) -프레스빌-